

(財)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 第33回理事会

平成10年2月

岩波書店の前社長で同書店発行の雑誌「世界」の元編集長であつた安江東介氏が六日、「死なつた」。安江氏が逝った六日、南朝鮮の二紙だ「女性のためのアシア平和国民基金」の支給要項を紹介する企画に名古が載つた。

広告を乗せたのは「韓国日报」とベンギヨレ新聞。内容は、橋本龍太郎首相のわざひの手紙と原文兵庫・同基金理事長のいきで、募金者のスッセージ、対象者と受付期間、同基金の活動内容、被書者が原理主義者かのじゆかに基金を運営する写真などが紹介されてくる。

晩年、安江氏が墨子となりて

「岩波書店の前社長で同書店発行の雑誌「世界」の元編集長であつた安江東介氏が六日、「死なつた」。安江氏が逝った六日、南朝鮮の二紙だ「女性のためのアシア平和国民基金」の支給要項を紹介する企画に名古が載つた。

取組んだいた問題で、核廃絶と「従軍慰安婦」の国賠問題を求める運動があつた。

国家補償の意味は、国家犯罪を認めた上で、何をやつたかを認めた上、その罪に対し國家が償つとくものだ。

歴史認識について眞っ直ぐ持

論を持つ安江氏は、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における加害者であるといきで、募金者のスッセージ、対象者と受付期間、同基金の活動内容、被書者が原理主義者かのじゆかに基金を運営する写真などが紹介されてくる。

◆ 今回の広告掲載につづいては、「死」にならぬひとを望む。ノウル駐在の日本大使館に対し

「南朝鮮外務省も「強烈不快の基金」は、日本側が国家補償を免れるために代わって設立したものだが、被書者だけではなくアジア各国からも何らの解決にはならないと非難されてしまった。

にもかかわらず今回の大きな広告掲載など、反発を予期しながら未だ誤認した「基金」を押し付けられたとする日本の姿勢には、形を変えた当時の侵略者ながらのじつった感もある。

島嶼ある文化人の死を惜しむ

じつだ。しかし、それが日本の良識の

（著）

## 安江氏の死と「民間基金」

朝鮮民族解放運動 / 22'98

行動して、一人ひとりの責任。  
任職者が希望だったのと、一人ひとりの倫理的価値観では決して問題ではない、(良心)が、あまり発達していないからだといふ。性的な犯罪の重さに対する認識が甘かったといふのだろ。

このあたりは、外國では決して問題ではない、異常であることを知つてはじめる。

### 事件起こした

#### 性意識の低さ

東京都 ハロ・シク・ペイ

(ハインズ教諭 32歳)  
大学生による集団女性暴行容疑の報道がショックが大きい。犯罪容疑者について

では詳しい報道を知りながら、犯罪容疑のない「普通」の学生だったのだ。

報道の人びとのような犯罪を見たり、ボルノ短編を読んだりする。ボルノAやボルノ雑誌を、十代の男性が興奮して見るのも普通のこと。女性暴行を描く少年漫画があるように切に願う。

【かすみ園】  
「かたえくば」  
最近「社」と「さ」の字が替ひひとことです  
——支持者

眼科医の日

(佐佐・迷惑)

電車の中で、普通のサラリーマンが、女性や子供の前で、平気で女性の裸体の写真を見る。個人の責任も考えられる。個人の責任感をよくくむ教育が実施され、女性に対する田舎的な認識が変わらなくなきり、じのような事件はなくないかも普通のこと。女性暴行をなげだれ。なくなるひとを切に願う。

98.1.26

朝日

# 한국 강력 대응에 日 조심스런 태도”

高麗文書考略 卷之三

정부가 일본본의 일방적인 한일이업협정 파기에 대응해 소환한 김대지(金太炤)주일대사는 25일 「일본은 한국의 강경대응에 매우 조심스런 모습」이라며 「어업협상 재개는 우리 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대사는 이날 하오·길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귀임시기에 대해 「본국의 지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국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본일답.

-국내의 경쟁대응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대응에 일본은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반응을  
관측하고 있다. 일본은 1년안에 다시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주재국 대사로서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방적인 파기가 매우 유감스러웠다. 주재국 대사로서 일본 정부에 이 뜻을 전했다』

- 어업협상에 대한 전망은,  
『한일 양국은 어업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한

안을 갖고 있어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상황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언젠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경권하에서는 협상재개는 어렵지 않겠느냐. (협상재개는) 우리쪽의 태도에 힘려 있다고 본다.

-우리 어선이 히카이도(北海島) 자율구제 수역에서 주업했다는데,

『자율규제조치는 양국어업을 규정해온 방식이다. 이 조치가 중단되었으니 앞으로 양국간 어선의 조업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태지주일대사가 25일 하오 김포공항을 통하여 입국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 【손용석기자】

-직선기선 침범협의로 나포된 3만구호 선원과 어선에 대한 전망은.  
『일본이 번적차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의 병설연기  
가 진짜라고 있다.

가 거론되고 있다.  
『언론에서만 얘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 일본에서도 아직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 권력범기자

韓日 어업재협상  
현정부선 어려워

**金太祖** 다시 어제구국  
나금지(金太祖) 다시 어제구국  
사는 25일 하에 허야스(呼雅斯)에  
연(延)나금지 어제구국에 허야스(呼雅斯)  
상(上)에 왔다. 다시 허야스(呼雅斯)

한국인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살하고자 고지록을 차려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गुरु ४**

अ सर्वां चतुर्वर्षा तमसा रुदि  
भृत्य देवां देवं देवां देवां

## 慰安婦問題は未解決

1/27 朝日新聞 韓国外相「賠償責任ある」

【カル26日中島哲夫】聯合通信社記者  
は26日、国会の統一外務委員会の審査を通じ、一九六〇年の日韓撫

本条約締結による交渉過程は従軍慰安婦問題が論議されなかつたと指摘。日本が慰安婦問題について該當責任がないと主張するのは不道」との見解を示した。日本

政府による日韓漁業協定終了通告に關し、「両国双方の請求権は基本的には喪失した」として日本側の主張を基本的には否定せず、人道的側面から「被害者が納得できる措置」を求めるだけで國家レベルでの賠償は要求しなかつた。統一外務委員会では、各党議員が日本の漁業協定終了通告を非難し、駐日大使石原や日本の國連安保理常任理事国入りへの反応を政府に求めた。



(1) 1993年1月27日 火曜

第23953號 (1963年4月9日 第3種郵便物認可)

"아인부"의 배상책임		법원	판결	판례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 위안부 배상 日 정부 책임

柳의무 日 측과 배치 : 갈등 예고

【**여**아부 **로**시**여**제**노** **서**】 **로**시**여**제**노** **서** **로** **시**  
【**여**아부 **로**시**여**제**노** **서**】 **로**시**여**제**노** **서** **로** **시**  
【**여**아부 **로**시**여**제**노** **서**】 **로**시**여**제**노** **서** **로** **시**

에스토니아 국립 도서관  
국립 도서관은 에스토니아 문화부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 도서관으로, 1920년 설립되었으며, 1924년에는 국립 도서관으로 승격되었다. 도서관은 에스토니아 역사와 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책과 저작물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에스토니아어 책과 저작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서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도서관 내에는 독서실과 대여실, 전시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특히 전시실에서는经常적으로 문학, 예술, 역사 등 주제의 전시회가 개최된다. 도서관은 국가적인 문화재로 인정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학술研究와 교류 활동을积极开展하고 있다. 특히 에스토니아어 책과 저작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서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도서관 내에는 독서실과 대여실, 전시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특히 전시실에서는经常적으로 문학, 예술, 역사 등 주제의 전시회가 개최된다. 도서관은 국가적인 문화재로 인정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학술研究와 교류 활동을积极开展하고 있다.

ପ୍ରକାଶ (ପ୍ରକାଶ) ଅମ୍ବାରୀ  
ମୁଦ୍ରଣ ପ୍ରକାଶନ କେନ୍ଦ୍ରିୟ  
ମୁଦ୍ରଣ ପ୍ରକାଶନ କେନ୍ଦ୍ରିୟ  
ମୁଦ୍ରଣ ପ୍ରକାଶନ କେନ୍ଦ୍ରିୟ  
ମୁଦ୍ରଣ ପ୍ରକାଶନ କେନ୍ଦ୍ରିୟ

이란 그 말을 수 있는 조  
지 않아 유통하고 싶어해  
셨다.  
마침내 마인드 티브 회사  
에서, 「당신이 원하는  
기사가 있다면 저에게 있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티브 회사는 그날  
유감스럽게 사과하고 말았  
다. 그리고 당시 유통하고  
있던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  
을 전송해온다.  
【여성기자】

부여, 강진성(江津城) 인장  
본·이화 사전성이  
하기 시작했다고 여겨  
된다. ▲관  
현자 선형·창포형(堺斧)  
하며 수궁에 치과해 왔다.

韓鮮  
西紀 1998年 1月 27日

火曜

국회 통일외무부 표정

日本성토  
"與野" 한목소리

তু-ঠোকারীয়া। কেমনি কু প্রস্তুত। সাধা নাক বৰাহ মূর  
ও কুমুদীয়া প্রস্তুত। কুপালা দুর্যোগে কু প্রস্তুত। সাধা  
জ ঠোকা প্রস্তুত। কুপালা দুর্যোগে কু প্রস্তুত। সাধা  
তু কুমুদী প্রস্তুত। নাম কুপালা দুর্যোগে কু প্রস্তুত।

반대해야.”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해야”

# 英國・橋本首相の謝罪評価

1948年9月1日 毎日新聞

慰安婦基金  
改めて評価

國連善行評議會

来日中のメアリー・ロジンソン・国連善行評議會

(前)アイラン・大統領

は千七日、都内の日本記

者クラブで会見し、日本の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

国連基金」が元慰安婦

に対し一時金の支払いを通

じていい問題について、

「(日本が)より責任を認

めの方で手綱がゆがまつ

ておらずややこしい」と

改めて評議する趣意を明ら

かした。

昨年七月に始まつた一時

金支払いに対するロビ

ン・井端が来日先立

ち、シネマードやほの集

会を開くする発言をして、

元慰安婦団体などが抗議

が出た。

井端は「時間がたつて  
いるのに、誰も証拠があ  
つて立証されてこなければ  
いい。それでも、こうい  
う形で進んでくるのだから  
か、いやされる効果はある  
と思う」と述べた。

1948年9月1日 每日新聞  
「反日」大衆紙寄稿も反響

ロンドン28日(三版良)  
二 日英関係に絆さつたト  
ダいわれる、第二次世界  
大戦中の日本軍による英  
兵捕虜の取り扱い問題で、  
日本に残しがつた英國の某  
因気に変化が生まれてい  
る。橋本龍太郎首相が訪日  
したアーレア英首相に謝罪を  
表明したことに加え、大家  
紙「サン」への寄稿で謝罪の  
気持ちを表したことなどによ  
るものだ。

橋本首相は12日、ブレア  
蔵相との会談で、「先の戦争  
で苦しかった人々に対する反  
省をおわびを表明した」と  
910年の(村山喜年蔵相)  
談話を内閣会見として可  
能いである」と語った。  
日本政府の謝罪に対する  
日本労働収容所生存者の会会長  
みるか。



日本労働収容所生存者の会会長

に謝罪を表明したところ立場だ。  
会長、政府同士は別に個人に  
も請求の権利があるはずだ。  
——アーレア首相が評議するなど  
橋本発言を受け入れる動きがあ  
る。会長、陪償請求訴訟で正義が実  
現されるひとを望んでいた。その  
ために来月東京に行く。

——抗議計画は、  
会長、現時点では何も固いとい  
ない。  
——会にしての予定は。  
会長、陪償請求訴訟で正義が実  
現されるひとを望んでいた。その  
ために来月東京に行く。

招待なし和解事業への取り組みも表明した。

英マスコミを驚かせたのは、橋本首相が14日付サン

紙と同じ内容の謝罪とともに、日英の和解と関係進展を

相は2回(アジア政界首脳

会議、主要な大臣会議会議)

最大部数を誇る同紙は捕虜問題で日本に最も厳しい姿勢をとり、昭和天皇死去の際には激しい表現で「反日半

島」などと書かれていた。

今回の橋本発言は初めて「内閣全体として」謝罪を

確認し、元捕虜の戦地招へいや元捕虜の孫の日本留学

マンペーンを行つた。

ティザーリントン会長、意見だけ

の「オフピ」で、罪を認め謝罪に応じる「シャザイ」になつてない。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

——日本政府は1951年のサ

ンハーリンシスコ講和条約調印の際

もつれないとおきな。

## 補償なく評価できぬ

——抗議計画は、

会長、現時点では何も固いとい

ない。

——会にしての予定は。

会長、陪償請求訴訟で正義が実

現されるひとを望んでいた。その

ために来月東京に行く。

首脳会談の翌日、サ

ン紙は社説で「橋本首脳は英日関係に肯定的メッセージを送った」と評論した。





二七

元従軍慰安婦を映画にした  
韓国の女性監督

ビヨン ヨン ジュ  
邊 永 姓 さん

あれは生きられる。だからちの  
願を見るたびに力欠を無心し  
た。「富の平穏な分野だ」と  
自分で自分を納得させた

父は医者。名門・梨花女子  
大の法学部生だったが、学生  
運動と風刺劇のコメディアン  
に没頭した。卒業の目前、好  
きな映画で生きようと考え、  
自主映画のグループで製作を  
はじめ。最初は宣伝する

「ハルモニ（おはあさん）」  
「園製作はる奈穂です」  
の日記を書いてるので撮影】  
撮影も大切にするのは、特  
にしたが、世の中はなかなか変わら  
ないが、田舎を描いて暮らす  
ものだけで遊ばない。自分に可  
能なマイナを使って、反抗  
の感覚を残した」と。  
鳥居一八「ひと大柄だ。あ  
たたけない表情のまま、田だけ  
をキラキラ輝かせる。

日本と韓國の若者が交流する行為も現れて来る。船で  
行きも現れて来る。船で  
をじ子オに撮影する。  
暗い過去の清算を望む口  
ごと、日本の侵略を忘れる  
いう韓国人。どちらも正  
が、お互いに相手は間違  
いると考えている。その  
に開心がある」

「人生に幸せを感じたら、いい映画は撮れない。一生不幸でいたい」。31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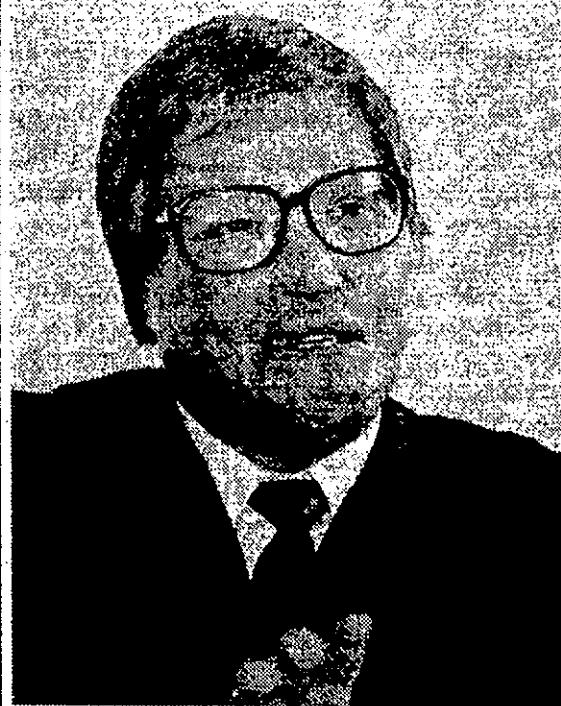


一)))) 人生の春を感じています 今日新宿

97.3.10

## 立命館大学教授になる —數中19年 の著者

徐  
勝さん



每日新聞

97.2.10

九、本邦被占領区域の性別別出生率  
性別別出生率は、本邦被占領区域の性別別出生率  
（十一）午前二時～午後四時。東京弁護士会女幹事會  
編刊に依する。

車）。14日は参院議員の大  
庭雅子さん、弁護士の福島  
瑞穂さん、日本消費者連盟  
連絡会長の喜田洋子さん  
によるシンポジウム「自立  
と共生の社会へ」、午後6  
時からは演劇・講演・家族  
に対する立てなしテーマ別  
の分科会。15日は地域の二

△権利とくうり、平和のかからうを上映。参加料員一  
ための女性集会と映画上映  
14日(土)午後一時半  
15日(日)午前9時半~12  
000円。問合せは三  
本婦人会議室 03-9381-000  
・18822。

14日(土)午後一時半、  
15日(日)午前六時半、  
共、東京都板橋区押上町5  
の3の6、東京ワーベンス  
アーバ(即「鐵道參觀點」)

(第3種郵便物資司)





韓一日「漁船 粉争」 柳外相、日本大使に遺憾を表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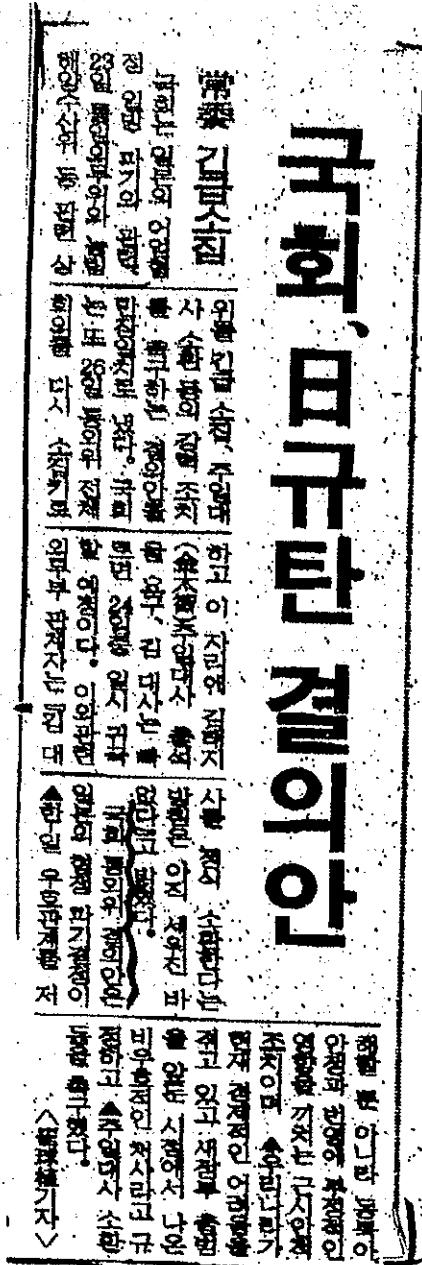
“協定一方的破棄は非友好的”  
駐日大使 今日一味帰国

（見出し）

国会、日本糾弾決議案  
常委、緊急召集

国会統一委員会の決議案は、

- ▲ 韓一日の友好關係を阻害する所では、  
東北アジアの安定と繁榮に否定的な  
影響を及ぼす近視眼的措置であり、
- ▲ 我が國が現在、經濟的に困難を  
経ており、また新政府立目の前にした  
時点での「非友好的」処置た  
七規定し、
- ▲ 駐日大使召還等 催促して。



朝鮮日報 1月24日付 1面

# ‘어업협정 파기’ 강력대응

## 조업자율규제 중단 日에 통보 日안보리이사국진출 저지 방침

일본정부가 23일 한일(韓日) 어업협정의 종료를 통보해 온 데 맞서 정부도 아날 조업자율규제 조치와 종단을 일본측에 통보함으로써 양국이었 분규는 좌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3·4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이같은 어업분야의 대응조치 외에 단계적으로 일본군 위한부 및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대응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유종하(柳宗夏)의무장관은 이날 오전 일본의 어업협정 종료통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도 양국간 조업자율규제 협의를 무기한 종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이날 오구라 가즈오 (小倉和夫)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이같은 입장을 공식통보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조치는 그간의 협상노력을 무시하는 것 같은 행태”라며 “우호적인 관계 실현마저 포기하겠다는 메시지인 만큼 정부의 대응조치도 어업분야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의 군대위안부와 유엔안보리 진출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구체적으로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지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고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분명

한 반대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65년 계절 평원·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종료 통고’를 정식 결정,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외무성 애나이 순지(棚井俊二) 차관은 각의 결정후 즉시 김태지 (金太智)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외부처 개이조(小淵惠三) 의장은 각의에서 “한국과 신어업협정 평의가 안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내 생물자원 유지를 위해 한·중협정 규정에 따라 종료를 한국에 통고한다”고 보고했다.  
(문 철기자·도쿄=윤상삼·권순록 특파원)

## 국회 日 규탄결의문 채택

### 금주일대사 일시소환

국회는 23일 통일외무위의 동립해양수산위 등 관련 상위를 긴급소집,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일본의 책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통일외무위는 이날 유종하(柳宗夏)의무장관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은 뒤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통일외무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하고 전부족에 김태지(金太智) 주일대사를 소환, 회의에 출석시키도록 요청했다.  
(윤영천기자)

東亜日報 1月24日行  
1面  
<見出し> 「国会 日本糾弾決議文採択」

### 金融日大使一時召還

国会は23日 総一外務委員会及び農業海洋水産委員会と召集、日本の方的に漁業協定破棄にともなう対策を論議して終り、日本の責任を強められ糾弾し、可能な限りのあらゆる対応、措置を取ることを政府に催促する決議文を採択した。